

여수시,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으로 지킨다”

빗길 교통사고 취약한 저학년 위해 50개 초등학교 2700개 전달



여수시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어린이 빗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투명우산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비오는 날 우산을 쓰면 앞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운전자들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0일 오전 안심초등학교에서 ‘투명우산 전달식’을 열고 학부모대표와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투명우산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청 관계자와 안심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여수시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전체 학생수의 약 60%에 달하는 투명우산 2,700개를 초등학교 50개교에 보급해, 갑자기 비가 올 때 등하굣길에 쓸 수 있도록 각 학급에 비치하고 대여 형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투명우산 캠페인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30% 가까이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권 시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매년 교통사고로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투명우산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초등 저학년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와 옐로 카펫 설치하는 물론 아동 성장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을 위해 아동수저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초등 복지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문화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국생활문화축제 성공 개최·예술인 복지사업 연계



순천문화재단은 9일 오후 2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순천문화재단 이사장(허석 순천시장)과 전남문화관광재단(주순선 대표이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

역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전남 동부권 문화예술사업의 저변을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에 어

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예술인 과감지원 등 예술인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협력해 추진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에서 열리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주관 순천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허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해풍에 말린 건다시마 올해 첫 위판 개시

49톤 2억2천7백만원 위판고 기록...최고 6500원 최저 2000원 거래

송기군 고흥군은 8일 금산면 위판장에서 열린 올해 첫 다시마 위판장을 맞아 고품질 다시마 생산에 힘써준 어업인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어업인들의 맘과 노력이 깃든 다시마가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산 다시마는 지역대표 해조류 특산물 중 하나로 지리적표시제 제15호에 등록되어있고 최적의 해양환경에서 자라 우수한 품질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청정 고흥해역에서 채취된 다시마는 육상건조장에서 해풍으로 자연건조시켜 주로 국물용으로 판매되며 국물의 감칠맛을 더하고 가족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초매식에서는 49톤 2억2천7백만원의 위판고를 기록하였으며 최고단가 6,500원 최저단가 2,000원에 거래되었다.

금년 다시마 수확은 해양환경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수출은 물론 내수시장 소비 둔화로 작년 재고량이 쌓여있어 전년 대비 80% 정도의 소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산 다시마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군 지원시책을 투자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지역민 우선예약제 운영

오는 16일까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와 광양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0 여름 성수기 백운산자연휴양림 지역민 우선예약제'를 운영한다.

지역민 우선예약제란 휴양림내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동에 한해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예약을 받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총 7일간이며, 17일부터는 기존 신청 예약으로 전환된다.

우선예약 숙박시설 이용기간은 여름 성수기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strip.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

항은 백운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bwm.t.gwangyang.go.kr>) 또는 휴양림관리사무소(☎061-797-2655)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수 휴양림사업소장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지역민 우선예약제 운영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광양소방서 실물화재 감식경연대회 1위

조도춘 소방위 2년 연속 수상

광양소방서는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과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한 ‘실물화재 감식 경연대회’에서 광양소방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도내 16개 소방관서 화재조사관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주택 화재 발생 상황을 연출해 진행했다.

심사는 화재 패턴과 현상 등을 확인하는 1차 육안감식과 화재 조

사 기자재를 활용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2차 합동감식을 통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를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광양소방서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더구나 이번 대회에 참석한 소방위 조도춘은 작년 에이어 2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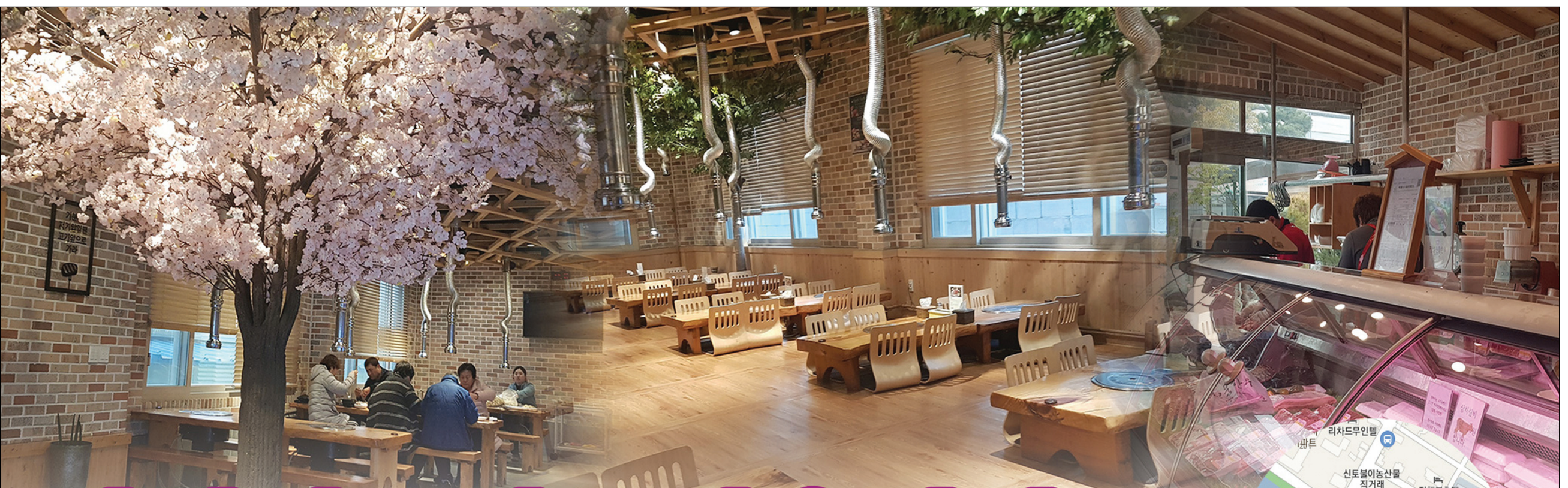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 현장에 대한 화재조사관의 감식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감식



기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감식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소방서는 오는 9월23일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실물화재 감식 경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